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40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経済新聞

※ 대상 기간 : 2025.05.08~2025.05.14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6
■ 중국		
-	중국, 미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조정 발표...상호 관세 대폭 인하	7
-	중국, 소비 환경 최적화 3개년 행동 계획 공식 출범	7
-	중국 민영경제촉진법 5월 20일 시행, 지원 정책 가속화	8
-	중국, 500큐비트 이상 지원 4세대 자체 양자컴퓨팅 제어 시스템 공개	9
-	중국, '저고도 경제+관광'으로 새로운 소비 활력 모색	9
-	KPMG 보고서: 중국 직장 내 AI 도구 사용률, 세계 평균 크게 상회	10
-	중국 광둥성, 소비 촉진 및 내수 확대 위한 금융 지원 특별 행동 계획 발표	11
-	1분기 한국의 베이징 투자 3.1억 달러, 전년 동기 63.5배 급증	12
-	중국 원난성, 35개 조치로 대외무역 안정 및 국경무역 발전 추진	12
-	중국 샤먼, 2035년까지 자유항 특성 경제특구 및 국제도시 건설 목표	13
■ 일본		
-	일본 금융청, 지역은행 공적자금 지원 제도 10년 이상 연장 검토	14
-	일본 정부, 저연금 대책 삭제된 연금개혁 법안 제출 예정	15
-	일본 정부, 중소기업 임금 인상 5년간 집중 지원...관민 60조 엔 투자	15

- 이시바 일본 총리, 소비세 감세 보류 의향...대체 자원 확보 난항 16
- 일본 경제산업성, AI 앱 개발에 최대 1억 엔 포상금 지원 17
- 일본 후생노동성, 관광·물류업 종사자 자격·연봉 정보 공개로 이직 및 임금인상 유도 17
- 일본 이바라키현, 중소 식품 가공사 해외 수출 1억 엔 달성 목표 지원 18
- 나가노시, 폐지 예정 6개 버스 노선에 합승택시 등 대체 교통편 마련 19
- 파나소닉 자회사 블루온더, 영국 스타트업 사업 인수로 물류 탄소 배출량 가시화 19
- 일본 지자체, 제조업 회귀 속 인도 등 해외 고급 IT 인재 유치 경쟁 20

■ 필리핀

- 필리핀 마린키나, 혁신허브 출범으로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21
- 필리핀, 3월 말 국가부채 16조 6,800억 페소...전월 대비 소폭 증가 22
- 필리핀 정부, 세부 지역 저소득층 대상 쌀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개시 22

■ 캄보디아

- 캄보디아, 태국 내 탄저병 발생 우려로 태국산 육류 수입 일시 금지 23
- 캄보디아, '국가 암 관리 계획 2025-2030' 발표 및 의료 인프라 강화 24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간 '최적 균형' 목표 24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산 연료 수입 줄이고 미국·중동으로 다변화 추진 25

■ 베트남

- 베트남 섬유산업,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위기 직면 26

- 태국

- 태국·말레이시아, 철도 연결성 강화로 경제 협력 확대 추진 26

-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디지털화 더딘 진행...정부 지원 확대 27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미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율을 34%에서 10%로 인하하고 일부는 90일간 부과 중단. 이는 미중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 합의 이행으로, 양국은 각각 기존 관세 및 보복 관세의 91%를 철회/중단하여 무역 갈등 완화와 양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소비 환경 최적화를 위한 3개년 행동 계획을 시작. 소비 공급 질 향상, 시장 질서 확립,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핵심 목표로 설정. 오프라인 매장 무이유 반품 업체 조희 플랫폼 '소비사(消費查)' 시범 운영 등 소비자 편의 증진 조치 포함
- ✓ 중국 최초 민영경제 기초법인 '민영경제촉진법'이 5월 20일 시행. 공정 경쟁, 민간 투자 활성화, 기술 혁신 지원, 기업 권익 보호 등을 포괄. 정부는 시장 진입 장벽 철폐, 국가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 민영 기업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지원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예정
- ✓ 중국 안후이성 번위엔(本源) 양자 기술이 500큐비트 이상 제어 가능한 4세대 양자컴퓨팅 측정 및 제어 시스템 '번위엔텐지(本源天机) 4.0'을 출시. 확장성, 집적도, 성능 안정성이 크게 발전하여 1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양산 및 상용화의 중요 기반을 마련. 금융, 신약 개발 등 다양한 분야 활용이 기대
- ✓ 중국에서 스카이다이빙, 헬기 투어, 드론 쇼 등 '저고도 경제'와 관광을 결합한 신규 소비 시장이 부상. 중국 정부는 정책 지원 강화 및 관련 산업 시너지 창출을 촉진 중. 지속 성장을 위해 전문 인력 유치,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기술 혁신이 필수
- ✓ KPMG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직장 내 AI 도구 사용률이 93%로 세계

평균(58%)을 크게 상회. AI 기술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등 혜택을 경험하지만, 사이버 보안 위협 및 허위 정보 확산 우려도 공존. 이에 AI 기술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규제 강화와 국가 간 공조 필요성이 제기

- ✓ 중국 광둥성이 소비 촉진과 내수 시장 확대를 목표로 6대 금융 지원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 다양한 소비자 계층 맞춤형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질 향상, 창업·고용 지원 통한 소득 증대, 노후 소비재 교체 및 주택·자동차 등 중점 분야 금융 지원 확대, 소비 금융 환경 개선 방안 등이 포함
- ✓ 2025년 1분기 한국 기업의 중국 베이징시 직접 투자가 3.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5배 급증. 베이징시는 '양구(兩區)' 건설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혁신과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주력 중이며, 최근 주중 한국 투자기업 간담회를 통해 양국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모색
- ✓ 중국 윈난성 상무청이 35개 조치를 담은 '대외무역 안정적 발전 및 질적 향상 추진 정책' 발표 국경무역 활성화를 위해 통관 대행 모델 혁신, 현지 가공 산업 육성, '100개 기업 국경 진출' 등을 추진. 쿤밍 세관은 농산물 교역 '녹색 통로' 구축 및 통관 절차 간소화를 지원할 방침
- ✓ 중국 샤먼시가 2035년까지 자유항 특징을 갖춘 경제특구 및 국제도시로 발전한다는 '국토공간 총체 계획' 발표 푸젠-타이완 경제 통합 심화, 동남 국제해운센터 기능 강화, 브릭스(BRICS) 국가 신산업혁명 파트너십 혁신 기지 지원 등을 통해 도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방안 포함

○ 일본

- ✓ 일본 금융청이 2026년 3월 만료 예정인 지역 금융기관 대상 공적자금 투입 제도를 10년 이상 대폭 연장 검토 지속되는 지역 경제 침체와 지방은행 경영 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이들 금융기관이 지역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설정

- ✓ 일본 정부가 파트타임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 확대를 골자로 한 연금 개혁 법안을 국회 제출 예정. 당초 검토된 취업 빙하기 세대 등을 위한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안은 여당 내 재원 확보 반대로 최종 제외.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연금 지급 수준이 현재보다 약 30%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 임금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60조 엔 규모의 국민 합동 투자를 포함한 집중 지원책 추진.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12개 업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납품단가 반영 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 지원 등 경영 기반 강화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
- ✓ 이시바 일본 총리가 물가 상승 및 미국 관세 조치 등에 따른 경제 대책으로 거론되던 소비세 감세를 보류할 의향 표명. 소비세 감세 시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대체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이 주된 이유. 이는 자민당 내 일부 감세 요구와 야당의 공세 속 정부의 신중한 입장으로 해석
- ✓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조업 기술 전수 문제 해결 및 행정 서비스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혁신적 AI 앱 개발 장려를 위해 최대 1억 엔 포상금 지급 제도 마련. NEDO 주관 사업으로, 기술 계승, 콜센터 효율화 등 4개 주제 공모를 통해 AI 기술 개발 촉진 및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 ✓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5년 내 관광 및 물류 산업 근로자의 보유 자격과 실제 임금 수준을 연계한 상세 정보 목록을 구축·공개할 계획. 정보 투명성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리스킬링 및 이직을 촉진하고, 기업의 자발적 임금 인상을 유도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할 방침
- ✓ 일본 이바라키현이 지역 내 가공식품 생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시작. 선정 기업에 상품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 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3년 내 연간 수출액 1억 엔 이상 달성을 목표. 이는 국내 시장 축소 대비 및 지역 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조치

- ✓ 일본 나가노시가 9월 말 운행 폐지 예정인 6개 시내버스 노선에 합승 택시와 시영버스 운행이라는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 발표시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시민 의견 수렴 및 의회 승인을 거쳐 시행, 지역 주민 이동권 보장 및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 유지를 위해 노력
- ✓ 파나소닉 자회사인 미국 블루온더가 영국 스타트업 프레지 어스 테크놀로지스 사업 부문 인수. 프레지사의 CO2 배출량 측정 및 시각화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를 통해, 블루온더는 고객사에 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ESG 경영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 일본 내 제조업의 국내 생산 시설 복귀 움직임 확산에도 불구하고, IT 분야 전문 인력 부족이 심화되자 다수 지자체가 인도 등 해외 고급 IT 엔지니어 유치에 적극적. 하마마츠시의 인도 공대 협약, 타 지자체의 기업-인재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 동력 확보 노력으로 평가

○ 필리핀

- ✓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국가개발공사가 협력하여 마리카나시에 필리핀 혁신허브를 공식 출범, '마리카나 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목표. 창업 초기 기업에 기술 지원, 인큐베이팅, 투자자 연결 등 포괄적 통합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여 지역 내 기업가 정신 고취 및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핵심 역할 기대
- ✓ 2025년 3월 말 기준 필리핀 총 국가부채가 16조 6,800억 페소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증가폭은 0.31%로 둔화. 필리핀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중요 과제로 인식,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2028년까지 60% 이하로 안정적으로 관리 목표 설정 및 관련 정책 추진
- ✓ 필리핀 정부가 세부 지역부터 저소득층 대상 쌀 보조금 프로그램을 5월부터 본격 시행. kg당 20페소에 구매 가능하며, 대통령 긴급기금 및 지방정부 재원으로 운영. 국가식량청 쌀 재고 소진 및 취약계층 식량 가격 부담 완화가 주요 목표. 빈곤율 높은 지역 우선 지원 예정

○ 캄보디아

-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가 인접국 태국 일부 지역 탄저병 발생 보고에 따라, 자국 내 질병 유입 및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해 태국산 살아있는 가축 및 관련 육류 제품 수입을 일시 중단 발표. 현재 캄보디아 내 발생은 없으며, 국경 검역 강화 및 신속 대응 네트워크 가동으로 상황 면밀 모니터링
- ✓ 캄보디아 정부가 증가하는 암 발병률 대응 및 국민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국가 암 관리 계획 2025-2030' 공식 발표. 훈 마넷 총리는 보건 환경 획기적 개선 의지 표명. 특히 루옹메병원을 암 전문 치료 센터로 전환하고 최신 의료 장비 도입 등 인프라 현대화에 집중 투자 계획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최근 1분기 경제성장을 둔화 상황을 고려, 향후 통화 정책을 물가안정 유지와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사이에서 '최적 균형점'을 찾는 데 중점. 루피아화 안정 위해 일시 중단했던 통화 완화 기조를 신중히 재검토하고, 필요시 외환시장 개입 및 유동성 확대 조치 병행 방침
- ✓ 인도네시아 정부가 현재 전체 연료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싱가포르산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및 중동 지역 국가로부터 구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입 전략 전환 계획 발표. 에너지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6개월 내 시행 전망

○ 베트남

- ✓ 베트남 섬유·의류 산업이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부터 46% 고율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 압박에 직면, 수출 비용 급증 위기. 관세 현실화 시 현지 제조업체 수익성 악화 및 미국 내 소비자가격 인상 우려. 베트남 정부는 시장 다변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전환 등 대응 전략 마련

○ 태국

- ✓ 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경 간 철도 노선 연결성 강화 및 경제 협력 확대에 합의. 기존 숭가이 콜록-란타우판 노선 복원 및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ECRL) 연계 방안이 주요 의제. 물류 효율성 증대 및 상호 경제 교류 활성화 목표, 2025년 7월 MOU 체결 추진 예정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디지털부 장관이 자국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속도가 대기업에 비해 뒤처진다고 지적하며 정부 지원 확대 의지 표명. '비즈니스 디지털화 이니셔티브(BDI)' 통해 보조금 배정, 글로벌 IT 기업과 협력 강화, 기업금융보증제도 증액 등 중소기업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시장 개척 지원책 추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미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조정 발표...상호 관세 대폭 인하 -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미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 조정을 발표. 2025년 5월 14일 12시 1분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미중 고위급 경제무역 회담의 중요 합의사항 이행이 주요 목표. 양국 생산자와 소비자 기대 부응 및 양국과 세계 공동 이익에의 기여가 전망됨 - 구체적인 조정 내용은 2025년 제4호 공고에 명시된 추가 관세율을 기존 34%에서 10%로 인하하고, 24%의 대미 추가 관세율은 90일간 잠정 중단함을 포함. 또한, 2025년 제5호 및 제6호 공고에 규정된 추가 관세 조치들은 전면 중단됨. 이러한 변화는 양국 간 무역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중국 상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미중 경제무역 고위급 회담은 실질적 진전을 통해 양국 간 관세 수준의 대폭적 인하를 이룸. 미국은 총 부과 관세의 91%를 철회,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 91%를 철폐. 또한 미국이 24% '상응 관세' 시행을 중단함에 따라 중국 역시 24% 보복 관세를 중지
	○ 중국, 소비 환경 최적화 3개년 행동 계획 공식 출범 - 중국 전국 시장감독관리 시스템이 항저우에서 회의를 열고 소비 환경 최적화를 위한 3개년 행동 계획을 공식적으로 시작. 이 계획은 시장감독관리총국 주도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됨. 소비 공급의 질 향상, 소비 질서 최적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 조성을 목표 - 각급 시장감독 부서는 3개년 행동 계획 추진을 위해 여섯 가지 중점 업무를 수행. 48개 시범 지역에서의 17개 중점 과제 우선 시행, 안심 소비 단위 및 집적구 육성, 소비 환경 종합 관리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강화 등이 포함됨. 또한 '디지털+신용'을 통한 소비 분야 신용 시스템 혁신, 소비 분쟁 해결 효율성 제고, 정부 총괄 및 부처 협력을 통한 추진력 확보가 요구 - 회의에서는 중국소비자협회가 개발한 오프라인 무이유 반품 업체 조회 플랫폼 '소비사(消費查)'가 시범 운영을 시작. 이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이유 반품의 온라인 확인 및 오프라인 체감을 실현. 또한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오프라인 타지역·타점포 반품 및 교환 약속 활동을 공동 발의, 7개 기업이 현장에서 공개 약속
	○ 중국 민영경제촉진법 5월 20일 시행, 지원 정책 가속화 - 중국 최초의 민영 경제 발전 기초법인 '민영경제촉진법'이 2025년 5월 20일부터 시행. 이는 중국 민영 경제 발전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의 상징적 사건으로 간주. 법무부는 관련 법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가속화, 행정 집행 행위 규범화, 행정 집행 감독 조례 제정 연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방침 - 총 9장 78조로 구성된 이 법은 공정 경쟁, 투자 및 용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규범 경영, 서비스 보장, 권익 보호 등을 포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민영 경제의 질적 발전을 위한 법적 보장을 강조하며, 진입 장벽 철폐, 발전 공간 확대, 서비스 보장 최적화에 주력할 예정. 특히 국가 중대 전략 및 사업 참여, 신홍 산업 투자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법률 시행을 위해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원 제도 구축에 힘쓰고, 이미 다수의 지원책이 발표됨. 전국공상업연합회는 정책 실행 지원 및 건전한 정경관계 구축을 도모하고,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다양한 규모와 단계의 민영 기업에 맞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법 시행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500큐비트 이상 지원 4세대 자체 양자컴퓨팅 제어 시스템 공개 - 중국 안후이성 양자컴퓨팅 공학연구센터는 번위엔 양자컴퓨팅 기술(허페이) 유한공사가 500큐비트 이상을 지원하는 중국 4세대 자체 양자컴퓨팅 측정 및 제어 시스템 '번위엔텐지(本源天机) 4.0'을 공식 출시했다고 발표. 이는 중국 양자컴퓨팅 산업이 복제 및 반복 가능한 공학적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 1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양산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양자컴퓨팅 측정 및 제어 시스템은 양자컴퓨터의 '중추 신경계'로, 양자칩의 정밀 신호 생성, 수집, 제어를 담당. '번위엔텐지(本源天机) 4.0'은 3세대 '번위엔우쿵(本源悟空)'에 적용된 3.0 버전의 주요 업그레이드로, 확장성, 집적도, 성능 안정성 및 자동화 수준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룸. 자체 개발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통해 양자칩 제어 및 관독 능력을 강화, 개발 및 납품 시간을 단축 - '번위엔텐지(本源天机)' 개발팀은 혁신적인 양자칩 디버깅 분석 응용 소프트웨어 '비자지(Visage)'를 개발하여 초전도 양자칩 디버깅의 전통적인 방식을 개선. 안후이성 양자컴퓨팅 공학연구센터 주임이자 번위엔 양자 수석 과학자인 귀귀펑은 '번위엔우쿵(本源悟空)'이 출시 이후 139개 국가 및 지역에서 2,600만 명 이상에게 38만 건 이상의 양자 계산 작업을 완료, 금융, 바이오 의학, 유체 역학 등 다양한 분야 발전에 기여 ○ 중국, '저고도 경제+관광'으로 새로운 소비 활력 모색 - 중국에서 스카이다이빙, 헬리콥터 투어, 드론 라이트 쇼 등 '저고도 경제'와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부상. 이러한 '저고도+관광'은 입체적인 체험을 통해 새로운 문화관광 소비 풍경을 만들고, 식음료, 숙박, 여행, 쇼핑, 오락 등 전반적인 소비 사슬을 활성화하는 공중 엔진 역할을 수행. 하이난 쑤야의 스카이다이빙 기지와 안후이 주화산의 헬리콥터 투어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힘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중국 정부는 저고도 경제를 2년 연속 정부 업무보고에 포함시키고 소비 촉진 행동 방안에도 관련 지원을 명시하며 정책적 지원을 강화. 허페이시의 유인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 항로 개설 기업 보조금, 충칭시의 저고도 비행 소비 쿠폰 발행, 쑤저우시의 신규 관광 항로 개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 중. 이를 통해 저고도 관광 산업과 호텔, 전시, 축제 등 타 산업과의 융합 발전도 촉진 - 저고도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재 부족, 운영 비표준화, 동질화 경쟁 등의 과제 해결이 시급. 전문가들은 고급 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지역 문화와 연계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 경량화·저비용 장비 연구 개발, 그리고 '저고도+연구학습', '저고도+건강 관리'와 같은 새로운 사업 모델 확장을 통해 시장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 기술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 동력 확보가 중요
	○ KPMG 보고서: 중국 직장 내 AI 도구 사용률, 세계 평균 크게 상회 - KPMG가 최근 발표한 '2025 글로벌 인공지능 신뢰, 태도 및 응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직장 내 인공지능(AI) 도구 사용률이 93%에 달해 세계 평균인 58%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조사는 47개국 4만 8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국 응답자의 AI 도구 상시 사용 수준은 50%로 현저한 선두 우위를 보임 - KPMG 아시아태평양 및 중국 담당 회장은 중국 응답자의 AI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수용성은 AI 발전의 견고한 기반을 반영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안전 거버넌스를 요구한다고 분석. 실제로 중국 다수 지역에서는 대규모 AI 모델 응용의 '규정 준수, 안전, 신뢰성' 확보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 이는 AI 기술의 책임감 있는 발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 - 전 세계 응답자의 80%는 일상 업무 자동화, 개인 맞춤형 서비스,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운영 비용 최적화 등 AI 기술의 혜택을 경험했지만, 사이버 보안 취약성 및 허위 정보 확산 등의 위험에 대한 우려도 표명. 이에 따라 세계 응답자의 70%가 AI 규제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강화를 촉구, 87%(중국 86%)는 AI 허위 정보 억제를 위한 국가 간 규제 시스템 구축과 미디어 플랫폼의 엄격한 사실 확인 메커니즘 마련을 요구
	○ 중국 광둥성 소비 촉진 및 내수 확대 위한 금융 지원 특별 행동 계획 발표 - 중국인민은행 광둥성 분행이 광둥성 당위원회 금융관공실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광둥성 금융 지원 소비 촉진 및 내수 확대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 이번 계획은 금융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6가지 주요 특별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 광둥성 소비 활성화에 새로운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주요 행동에는 소비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혜택 증진, 금융을 통한 소득 증대 촉진, 소비 금융의 양적·질적 확대가 포함. 청년, 중년, 노년, 신도시 주민 등 네 그룹을 대상으로 금융 공급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창업 및 고용 지원, 재산 소득 증대, 농촌 산업 지원을 통해 소비 여력 확충을 도모. 소비재 교체, 주택, 자동차, 문화관광 등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 - 또한 소비 인프라 및 유통 시스템 건설 지원, 결제 환경 최적화를 통한 소비 공급 능력 향상 추진. 소비 분야 신용 시스템 구축, 금융 상품 위험 관리, 담보 및 보험 완화 메커니즘 강화,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해 소비 금융 환경 개선. 은행 대출, 채권 시장, 지분 금융, 금융 리스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소비 시장 자금 조달 경로 확대도 적극 모색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1분기 한국의 베이징 투자 3.1억 달러, 전년 동기 63.5배 급증 - 2025년 1분기 한국의 대(對)베이징 투자가 3억 1천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63.5배라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실제 투자액은 9억 7천만 달러에 달함. 베이징시 상무국 부국장은 '2025 주중 한국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베이징이 기술 연구개발, 첨단 제조, 현대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 풍성한 협력 성과를 거둠을 강조 - 베이징시는 '양구(兩區)' 건설을 통해 정책 혁신과 환경 최적화에 주력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 힘씀. 국가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구 및 중국 (베이징) 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140여 개의 혁신 정책을 시행, 70여 개의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 기업 설립부터 운영, 철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1천여 개 개혁 조치와 '베이징시 외상투자조례' 제정 등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 - 주중 한국대사관 박대규 상무관은 베이징이 한중 경제 산업 협력의 핵심 허브라며 이번 간담회가 한국 기업의 투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간담회에서는 베이징시 발전 개혁위원회, 상무국, 사이버정보관공실, 과학기술위원회 등이 거시 경제, '양구' 정책, 데이터 이전, 바이오 의약 산업 환경 및 외자 연구개발센터 지원책 등을 소개. LG화학, SK그룹, 대한항공 등 70여 개 한국 기업이 참가
	○ 중국 윈난성, 35개 조치로 대외무역 안정 및 국경무역 발전 추진 - 중국 윈난성 상무청이 최근 '2025년 대외무역 안정적 발전 및 질적 향상 추진 정책(1차)'을 발표, 총 35개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대외무역 수출입의 지속적인 호조세를 이끌어낼 방침.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과 국경을 맞댄 윈난성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중요한 관문으로, 올해 첫 4개월간 대외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789억 1천만 위안을 기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이번 1차 대외무역 정책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수출 지향형 산업 사슬을 보완하고, 정책 서비스 및 무역 방식 사슬을 최적화하여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데 중점. 특히 국경무역 진흥을 위해 통관 대행 모델 혁신, 시장 주체 육성, 국경(초국경)협작구를 활용한 '국경주민 상호시장+현지 가공' 발전, '100개 기업 국경 진출' 행동 등을 추진하며 현지 가공기업의 공장 건설 및 설비 구매 등을 지원 - 쿤밍 세관은 개방형 플랫폼과 특색 산업 발전을 지원하며, 특히 주변 국가와의 농산물 '양방향 교류'를 위한 '녹색 통로'를 구축할 예정. 주변국의 우수 농식품 검역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라오스, 태국 등 아세안 국가의 우수 과일 수입을 위한 콜드체인 전용 열차 운행을 지원. 향후 통상구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및 초국경 무역 편리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표명
	○ 중국 샤먼, 2035년까지 자유항 특성 경제특구 및 국제도시 건설 목표 - 중국 샤먼시가 2035년까지 자유항 특징을 갖춘 경제특구이자 높은 수준과 가치를 지닌 현대적 국제도시로 전면 건설될 목표를 설정했다고 장즈훙 부시장이 발표. 이는 국무원이 2025년 1월 2일 승인한 '샤먼시 국토공간 총체 계획(2021-2035년)'의 핵심 내용으로, 샤먼시의 국토 공간 보호, 개발, 이용, 복원의 정책적 기본 골격을 제시 - 샤먼시는 동남 연해 지역의 대외 개방 관문 역할을 적극 수행하며, 푸젠-타이완 통합 발전 심화 및 샤먼-진먼 간 선도적 통합 발전을 추진하여 양안 통합 발전 시범구 건설을 주도할 방침. 높은 대외 경제 의존도와 광범위한 국제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 중대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동남 국제해운센터 및 중국(푸젠) 자유무역 시험구 샤먼 지구 기능 확충을 계획 - 또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핵심 구역 건설에 통합되고, 브릭스(BRICS) 국가 신산업혁명 파트너십 혁신 기지 발전 수요를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지원하여 국제 경제무역 협력에서 도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제고. 해당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민시 서남 협동 발전구까지 2시간 내, 광둥·푸젠·저장 연해 도시군 및 창장 삼각주, 주장 삼각주 주요 도시까지 3시간 내, 국가 및 지역 중심 도시까지 4시간 내 접근성 확보를 목표로 설정
일본	○ 일본 금융청, 지역은행 공적자금 지원 제도 10년 이상 연장 검토 - 일본 금융청이 지역 금융기관의 재무 기반 강화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제도의 대폭 연장을 검토 중. 현행 제도는 2026년 3월 말 신청 기한 만료 예정으로, 금융청은 10년 이상을 축으로 연장을 고려하여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 지원에 집중할 환경 조성을 목표. 이와 함께 지방은행 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교부금 제도 역시 이용 편의성을 높일 방침 - 현행 제도는 금융기능강화법에 기반하며, 올가을 금융심의회에서 제도 개정 논의를 시작해 2026년 정기국회에 개정 법안 제출을 목표로 조정 중. 가토 가쓰노부 금융상은 조만간 제도 개정 방침을 표명할 전망. 2004년 시행 이후 4~5년마다 연장되어 왔으며, 코로나19 특례 조항 신설 및 본 제도 요건 완화도 함께 검토될 예정 - 물가 상승, 인구 감소 등 지역 경제 환경 악화와 사이버 공격 대응 비용 증가가 지방은행 경영을 압박하는 상황.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같은 새로운 위험 요인도 부상하고 있어, 금융청은 제도 연장을 통해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 지역 금융기관 경영 통합 시 초기 비용의 3분의 1(최대 30억 엔)을 지원하는 교부금 제도도 대상 확대가 검토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일본 정부, 저연금 대책 삭제된 연금개혁 법안 제출 예정 - 일본 정부가 금주 내 각의 결정을 거쳐 연금제도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법안의 핵심은 파트타임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 확대임. 그러나 취업 빙하기 세대 등을 위한 저연금 대책이었던 기초연금 수준 인상은 여당 내 신중론에 밀려 검토 단계에서 최종 삭제됨. 이로써 연금 지급 수준의 30% 하락 가능성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짐 - 후생노동성은 당초 후생연금 적립금을 기초연금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재원 유용'이라는 비판과 추가 국고 부담 문제로 자민당 내 반대에 직면. 여름 참의원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민당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제외됨. 거시경제 슬라이드 제도의 미흡한 작동으로 현 고령층에게는 상대적으로 후한 연금이 지급된 반면, 미래 세대의 수급액 감소가 예상 - 법안에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연봉 106만 엔 이상이라는 임금 요건을 철폐하고 기업 규모 요건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 또한 일하는 고령자의 연금을 삭감하는 재직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하여 급여와 후생연금 합계 월 62만 엔 이하면 연금 전액을 수령 가능하도록 조정. 고소득자의 후생연금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
	○ 일본 정부, 중소기업 임금 인상 5년간 집중 지원·관민 60조 엔 투자 -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향상을 위해 5년간의 집중 지원책을 추진할 방침. 생산성 향상 등에 2029년도까지 관민 합동으로 약 60조 엔을 투자하고, 특히 인력 부족이 심각한 음식업, 간병·복지 등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개별 지원을 진행. 이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내건 '20년대 최저임금 전국 평균 1500엔' 목표 달성의 핵심 과제로 평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정부는 14일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회의'에서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임금 향상 추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6월 실행 계획에 포함할 예정.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공공수요를 포함한 가격 전가, 생산성 향상, 사업 승계 등 경영 기반 강화를 적극 지원 - 인력 부족이 심각한 12개 업종 대상 '성력화 투자 촉진 플랜'을 마련하여 전국 2000여 곳의 상공회의소를 통해 지원하고, 약 500개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정부 지원책 소개 등에 주력. 특히 약 400만 명이 종사하는 음식업은 노동생산성을 2029년까지 2024년 대비 명목 35% 향상, 숙박업도 동일한 목표 설정
	○ 이시바 일본 총리, 소비세 감세 보류 의향·대체 재원 확보 난항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물가 상승 및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경제 대책으로서의 소비세 감세를 보류할 의향을 표명. 이는 소비세 감세 시 대체 사회보장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름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식료품 등에 적용되는 경감세율 인하를 요구하던 자민당 내 목소리와는 대조 -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 인하가 부적절하다는 정부 입장을 밝히며, 소비세가 전 세대형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 소비세율 인하는 세수 대폭 감소로 이어져 연금, 의료, 육아 등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 - 자민당 내 적극재정과 의원들은 생활필수품 소비세율의 항구적 제로화를 요구하는 제안을 전달했으나, 당 지도부는 재원 문제를 지적. 반면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당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감세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시한부 식료품 소비세율 제로화 또는 일괄 5% 인하 등을 주장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일본 경제산업성, AI 앱 개발에 최대 1억 엔 포상금 지원 -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조 및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대상으로 포상금 제도를 신설한다고 발표. 우수한 AI 앱 개발자에게 최대 1억 엔의 성공 보수를 지급할 계획으로, 이는 경제산업성 산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사업의 일환. 이전 양자 기술 및 위성 데이터 활용 분야보다 포상금 규모를 확대하여 참가자 증가를 유도 - 이번 공모는 제조업 기술 계승, 콜센터 업무 효율화 등 4개 주제로 진행되며, 일본 내 기업, 대학 및 일부 일본 국적 개인이 참여 가능. 참가자들은 2025년 내 성과물을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는 2026년 3월 말 발표될 예정. 성능 및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준으로 상위 3개 팀에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며, 특허청 심사 효율화 부문 1위에는 1억 엔이 수여됨 - 상위 입상자 외에도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업자에게는 특별상이 주어질 예정이며, 포상금 총액은 최대 7억 8천만 엔에 달할 전망. 이번 조치는 AI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 확대를 목표로 설정
	○ 일본 후생노동성, 관광·물류업 종사자 자격·연봉 정보 공개로 이직 및 임금인상 유도 -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5년도 중에 관광 및 물류업계 근로자의 자격과 임금 수준을 연계한 정보 목록을 마련할 계획. 기능 검정 등 특정 자격 취득 시 예상되는 수입 수준을 가시화하여,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기술 향상(리스킬링) 및 이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도모. 이르면 9월부터 실태 조사에 착수하여 연내 목록을 완성, 직업정보제공 사이트 '잡태그'에 게재 예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관광업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력 확보가, 물류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심각한 과제로 대두됨. 호텔 매니지먼트 기능 검정 1급 소지 총지배인급의 경우 '연봉 000만 엔 정도'와 같이 구체적인 금액 범위를 명시하여 정보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리스킬링, 직무 중심 인사, 노동 이동 원활화 등 '삼위일체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 자격과 임금의 연관성이 명확해지면 근로자들이 고소득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신의 능력에 맞는 처우를 찾아 이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또한, 숙련된 직원의 이탈을 막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유사한 제도가 시행 중이며, 다른 업계로의 확산이 기대
	○ 일본 이바라키현, 중소 식품 가공사 해외 수출 1억 엔 달성 목표 지원 - 일본 이바라키현이 사무국을 맡은 이바라키 글로벌 비즈니스 추진 협의회가 일본 전통술(사케) 및 건조 고구마 등 가공식품 수출 확대에 나서는 중소기업 모집을 시작.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상품 개발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 보조금을 지원하여, 3년 이내 연간 수출액 1억 엔 이상 달성을 목표. 이는 향후 국내 시장 축소에 대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함 - '수출 확대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시장 맞춤형 상품 개발 및 개량 비용에 대해 보조율 2분의 1 이내, 최대 200만 엔을 지원. 판로 확보를 위한 바이어 소개 등 관련 비용도 첫째 최대 500만 엔, 2년 차 이후에는 최대 300만 엔까지 보조. 현 내 본사나 생산 거점을 둔 2024년도 수출 실적 1억 엔 미만 사업자가 대상이며, 21일까지 신청 접수 - 이바라키현은 농업 생산액 전국 3위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출 실적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나, 최근 농축산물 외 수출용 가공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식품 사업자 지원을 강화. 그 결과 2023년도 주류 포함 가공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24억 8200만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지원 정책의 효과를 입증
	○ 나가노시, 폐지 예정 6개 버스 노선에 합승택시 등 대체 교통편 마련 - 일본 나가노시가 9월 말 폐지 예정인 6개 버스 노선에 대해 합승택시와 시영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을 발표. 합승택시는 10월부터, 시영버스는 기존 버스 사업자의 폐지 예정 시기를 반년 연기 받아 2026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 시는 시민 의견 수렴 및 지역 공공 교통 회의 협의를 거쳐 6월 시의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지속 가능한 공공 교통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 - 폐지 예정 노선은 나가노시 중심 시가지와 산간 지역을 연결하는 6개 장거리 노선으로, 현재 아루피코 교통과 나가텐 버스가 각각 5개와 1개 노선을 운영 중. 시의 방안에 따르면 무레선, 현도 도가쿠시선, 시노노이 신마치선 3개 노선에는 10인승 합승택시가 투입. 기나사선, 다카후선, 신마치 오하라바시선 3개 노선은 중형버스 등을 이용한 시영버스로 전환될 예정 - 나가노시의 대체안 발표에 따라 나가노현도 대응책을 설명하며, 2개 시정촌에 걸친 무레선과 다카후선에 대해 통학 및 통원 지장 여부를 점검. 폐지 시기를 연기하는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 버스 사업자 운행 경비 보조를 검토 중이라고 밝힘. 이는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평가
	○ 파나소닉 자회사 블루온더, 영국 스타트업 사업 인수로 물류 탄소 배출량 가시화 - 파나소닉 홀딩스 산하 파나소닉 커넥트의 자회사이자 공급망 관리 시스템 전문 미국 기업 블루온더가 영국 스타트업 프레지 어스 테크놀로지스의 사업을 인수했다고 발표. 이번 인수는 화물 운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송 관련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가시화하는 프레지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고객 지원 메뉴를 확대하기 위함. 프레지사 소프트웨어는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 파악이 가능 - 프레지사의 소프트웨어는 화물량, 운송 경로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톤당 CO2 배출량을 산출하며,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산출 방식으로 공공기관 및 주주 보고 용이성을 제공. 블루온더의 수요 예측 및 재고 최적화 소프트웨어와 결합 시, 거래처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의 CO2 배출량 산정도 가능해짐. 파나소닉은 2021년 약 8000억 엔을 투자해 블루온더를 인수한 바 있음 - 파나소닉 홀딩스 구스미 유키 사장은 최근 결산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을 전면 활용한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5월까지 거의 완성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세를 펼칠 계획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언급. 이번 인수는 블루온더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및 파나소닉의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
	○ 일본 지자체, 제조업 회귀 속 인도 등 해외 고급 IT 인재 유치 경쟁 - 일본 내 제조업의 국내 회귀 움직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기술(IT) 엔지니어 등 고급 외국인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섬. 하마마츠시는 인도 최고 이공계 대학과 협력 각서를 체결했으며, 가나가와현과 도치기현 등은 지역 기업과 외국 인재 간의 연결을 지원. 이는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생산 거점 유치를 위한 전략의 일환 - 하마마츠시는 2024년 인도 공과대학 하이데라바드교와 고급 외국인 인재 유치 협약을 맺고, 2025년부터 스즈키 자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인도 스타트업과 지역 기업 교류를 촉진할 계획. 야마나시현 또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와 관계를 강화하며 현지 기업 연수 기회 창출 및 학생 교류를 추진. 이러한 움직임은 환율 변동 및 세계 무역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제조업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의 국내 복귀 경향을 반영 - 일본 내 IT 인력 부족은 심각한 문제로, 2030년 최대 79만 명 부족이 예상됨. 외국인 고급 인재 유치에 직접적인 해결책으로 기대되며, 2023년 말 기준 고급 인재 체류자 수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2만 3958명 기록. 가나가와현, 도치기현, 지바현 등 다수 지자체가 외국인 채용 지원금, 전담 지원센터 설치, 직장 전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인재 유치에 총력
필리핀	○ 필리핀 마리카나, 혁신허브 출범으로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 필리핀 통상산업부(DTI)와 국가개발공사(NDC)가 마리카나시의 지원을 받아 필리핀 혁신허브를 출범시킴. 마리카나 기업센터 내에 자리한 이 허브는 '마리카나 스타트업 밸리' 조성을 목표로 하며, 기업가들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번 출범은 필리핀의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 - 혁신허브는 기술 지원,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규제 간소화, 디지털 온보딩(디지털 환경 적응 지원), 투자자 매칭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 특히 필리핀 기업들이 마리카나 지역 내에서 사업을 공식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 이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 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적극 도모할 방침 - 마리카나 혁신허브는 향후 추가적인 규모 확장을 계획 중이며, 이미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임. 허브는 마리카나시가 보유한 풍부한 인재, 창의성, 강력한 추진력 등을 바탕으로 필리핀 내 대표적인 스타트업 밸리로 성장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 필리핀, 3월 말 국가부채 16조 6,800억 페소·전월 대비 소폭 증가 - 2025년 3월 말 기준 필리핀의 총 국가부채가 16조 6,800억 페소(약 423조 8,000억 원)를 기록, 전년 동기 14조 9,300억 페소 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그러나 전월 대비로는 0.31% 증가에 그쳐 증가폭은 다소 둔화된 양상. 필리핀 재무부는 주요 우선순위 사업 재원을 추가 차입 없이 기존 재정 수입으로 충당하면서 부채 증가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 - 필리핀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신용등급 상향 및 투자자 신뢰 유지를 위해 노력 중. 구체적으로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3월 말 기준 전체 국가부채 구성을 살펴보면, 91.5%가 고정금리, 81.3%가 장기 채무로 구성되어 안정적인 부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또한 국내 차입이 전체 부채의 68.2%를, 대외 차입이 31.8%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외 자금 조달원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의도 또한 엿보임.
	○ 필리핀 정부, 세부 지역 저소득층 대상 쌀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개시 - 필리핀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5월부터 세부 지역에서 킬로그램(kg)당 20페소(약 500원)에 쌀을 판매하는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함. 해당 프로그램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의 45억 페소(약 1,100억 원) 규모 긴급기금과 지방정부(LGU)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의 식량 부담 완화를 목표로 설정 - 프란시스코 티우 로델 주니어 농업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 도입 배경으로 국가식량청(NFA) 창고의 포화 상태인 재고 해소 목적을 언급. 최근 마르코스 대통령의 벼 수매 확대 정책으로 국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가식량청의 쌀 비축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해석 - 농업부는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 기간을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연장하여 전체 인구의 약 51%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 초기에는 제6, 7, 8지역 및 잠보앙가 등 빈곤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시행 첫 3개월간의 성과를 모니터링하여 프로그램의 수용성과 효과성을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
캄보디아	○ 캄보디아, 태국 내 탄저병 발생 우려로 태국산 육류 수입 일시 금지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가 지난 5월 7일, 태국 일부 지역에서의 탄저병 발생을 이유로 태국산 가축 및 관련 육류 제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 현재까지 캄보디아 내에서 탄저병 발생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질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이번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 - 농림수산부는 태국의 탄저병 발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경 검문소의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수입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단속 및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함. 또한 동물보건생산총국은 전국 25개 주와 수도에 신속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 가축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즉각적인 개입 준비 - 캄보디아 농림수산부는 탄저병 관련 상황 변화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예정임을 밝힘. 또한, 국민들이 관련 문의사항이나 의심 사례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연락처를 함께 안내하며 소통 강화 노력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디아	○ 캄보디아, '국가 암 관리 계획 2025-2030' 발표 및 의료 인프라 강화 - 캄보디아 정부가 지난 5월 7일, 암 발병률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암 관리 계획 2025-2030'을 공식 발표함. 훈 마넷 총리는 이 계획을 통해 보건 환경을 크게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특히 루옹메 병원의 암 치료 시설 현대화 계획을 중요 과제로 제시 - 정부는 기존에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설립된 루옹메병원을 암 전문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함. 이 현대화 사업에는 병원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최신 의료 장비 도입을 통한 암 진단 및 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방안이 포함되어, 암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환경 제공이 목적 - 캄보디아는 현재 암 치료 전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직면. 병원 시설과 장비는 비교적 신속하게 구축 가능하지만, 숙련된 전문 의료 인력 양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 현대화, 첨단 장비 도입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포괄적 접근 방식 추진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간 '최적 균형' 목표 - 줄리 부디 위난티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경제통화정책국장이 환율을 포함한 물가안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 최근 인도네시아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3년 내 최저치인 4.87%를 기록한 가운데, 중앙은행은 안정성 유지와 성장 촉진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지난해 9월 이후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최근 루피아화 안정에 집중하기 위해 통화 완화 기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임. 지정학적 긴장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불확실성으로 루피아화 약세가 나타나자, 시장 신뢰도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지속할 방침 표명 - 중앙은행은 성장 지원을 위해 중앙은행 증권(SRBI) 발행 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등 유동성 확대에 초점을 맞춘 공개시장운영을 실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채 입찰 참여 등 인도네시아 자산 매입을 재개하며 루피아화 강세에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향후 수개월간 배당금 송금 및 외채 상환을 위한 달러 수요 증가가 환율 변동성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산 연료 수입 줄이고 미국·중동으로 다변화 추진 - 바호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현재 전체 연료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싱가포르산 연료 수입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번 결정은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포괄적인 에너지 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 확보가 주된 목적 - 인도네시아는 무역 관계 다변화와 미국의 잠재적 관세 부과 회피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싱가포르 중심의 연료 구매처를 미국 및 중동 지역 공급업체로 전환할 예정. 관련 조치는 향후 6개월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수입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 확보에 중점 - 싱가포르는 역내 주요 연료 정제 허브로서 현재 인도네시아에 하루 약 29만 배럴 규모의 정제 연료를 공급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이번 수입 전략 전환이 싱가포르 정유 산업 및 역내 연료 시장의 수급 균형과 가격 변동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며, 관련 시장 동향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을 강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 베트남 섬유산업,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위기 직면 - 베트남의 핵심 수출 산업인 섬유·의류 부문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인해 심각한 수출 비용 증가 위기에 직면. 미국이 제시한 46%의 상호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베트남 현지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까지 초래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이는 베트남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 - 베트남 섬유 생산업체들은 7월로 다가온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주문량 이행을 위해 생산과 선적을 서두르고 있지만, 이미 일부 주문 취소, 신규 채용 동결, 기존 인력 감축 등이 발생하는 등 단기적 어려움에 봉착. 현재 베트남 총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 대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최혜국 관세가 적용되고 있음 -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위기 극복 및 장기적인 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산업 구조 고도화, 수출 시장 다변화, 국제 경제 통합 노력 다각화 등 다방면의 전략을 추진할 방침. 특히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한 신규 시장 개척과 제조자 개발 생산(ODM), 제조자 브랜드 생산(OBM)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장려
태국	○ 태국·말레이시아, 철도 연결성 강화로 경제 협력 확대 추진 - 로케 시우 폭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교통부장관이 태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철도 노선 연결성 강화 및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주요 의제는 승가이 콜록-란타우판jang 철도 노선 복원과 현재 건설 중인 말레이시아 동부해안철도(ECRL)와의 연계 방안으로, 이를 통해 양국 간 물류 효율성 증대 및 경제 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 - 양국은 국제 철도 화물 운송을 촉진하고 국경 통과 절차를 간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태국	소화하기 위해 단일 통관 시스템 도입 등 국경 간 물류 인프라 강화에 합의. 태국은 현재 중국과의 고속철도 사업 및 돈므앙-수완나품-우타파오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아세안 지역 내 교통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에 주력. 이번 협력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 -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2025년 7월까지 국경 간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한 두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목표로 실무 협상을 진행할 예정. 이번 철도 협력 강화는 양국의 물류 네트워크를 긴밀히 연결하고, 나아가 양국 간 무역,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디지털화 더딘 진행...정부 지원 확대 - 고빈드 싱 데오 말레이시아 디지털부 장관이 현지 중소기업 대부분이 디지털 전환 노력에서 대기업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힘. 말레이시아 정부는 '비즈니스 디지털화 이니셔티브(BDI)' 등을 통해 이러한 격차 해소 및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을 강조. 디지털 전환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 - 정부는 중소기업 및 공급업체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5,000만 링깃(약 163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배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 이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클라우드와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도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력하여 현지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및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원에 동참 -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최근 미국의 관세 발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금융보증제도의 정부 보증 규모를 10억 링깃(약 3,200억 원) 증액한다고 발표. 또한, 말레이시아무역개발공사(MATRADE)에 약 5,000만 링깃을 추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배정하여 국제 무역 박람회 개최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신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